



금남로 '성난 햇불'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가 지난 29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개최한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시민·학생들이 햇불을 들고 금남로를 행진하고 있다. 햇불이 등장한 것은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처음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합니다"

광산구 첨단 두산 1차 아파트 '현수막 달기' 인근 아파트로 확산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 지난 29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두산 1차 아파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 황미순(여·34)씨가 아파트 벽면에 현수막 하나를 내걸고 있었다. 경기도 과천 지역 아파트촌에서 처음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광우병 반대 현수막'이다.

"설령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은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 구별하기도 어렵잖아요. 믿고 먹을 것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나 가족의 건강은 주부들이 쟁여야죠," 황씨가 현수막을 내건 이유다.

현재 두산 1차 아파트 벽면에 걸린 현수막은 30여개.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 주부들을 중심으로 현수막 달기 운동이 확산돼, 날마다 5~6개의 현수막이 추가로 나걸리고 있다.

또 두산 1차 아파트 외에도 두산 2차, 라인 8차, 부영, 호반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주부 수십 명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등 현수막 달기 운동이 광산구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쇼

광물 구매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광우병 반대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는 한 인쇄업체 대표는 "이날까지 현수막 2천 700여장을 판매했다"며 "날마다 100~200개의 주가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광우병 반대 현수막'은 이달 중순 경기도 과천에서 처음 생겨났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자, 화가 난 과천 주부들이 집집마다 수입반대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했다.

이후 네이버 사이트에서 이 현수막이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초기에는 9천 900원 하던 현수막의 가격도 수요가 늘자 최근에는 5천 500원까지 내려갔다.

광주에 광우병 현수막이 본격적으로 상용을 시작한 것은 이보다 조금 늦은 열흘 전쯤. 금남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광우병 현수막 수요가 늘었다. 찾는 이들이 많아지자 광우병 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에서 이 현수막을 단체주문했다.

/인천주기자 ahj@



지난 29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두산 1차 아파트 주부들이 '광우병 반대 현수막'이 달린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인천주기자 ahj@

## 광주·전남 대학 동맹휴업 추진

전국서 美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동맹휴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동맹휴업을 묻는 투표를 진행중이며, 부산지역 대학생들도 6월 4일을 동맹 휴업일로 정했다.

남총련과 전남대, 조선대 등에 따르면 각 대학은 6월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철회 촉구를 위한 동맹휴업에 참가할 것을 논의 중이다. 남총련 관계자는 "최근 전남대와 조선대 등 남총련 소속 대학 대표들이 만나 동맹휴업을 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시기는 6월 5일 또는 1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200여명은 31일과 다음 달 1일 이를동안 서울 광운대 등에서 열리는 '한국대학 5월 학미당'에 참가한 뒤,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한총련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전남대 김현웅 총학생회장은 지난 19

일부터 단식에 들어갔으며, 전남대 집행부 6명도 지난 16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번 주말 서울집회에서 삽발을 계획 중이다.

한편 30일에도 서울과 광주 등 전국 도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특히 주말인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도 30일 오후 광주시 금남로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 앞서 남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조선대에서 금남로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에서 217명을 연행해 이 중 18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1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으며, 고교생 7명을 포함해 11명은 훈방, 5명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강운태·유선희 의원 불구속 기소

18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통합민주당 유선희 의원과 무소속 강운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오인서)는 4·9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운태(광주 남) 의원을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월 18일 오후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자신의 비서관과 함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서모(52)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돈을 받았다는 사람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하고, 배후 음해세력에 대한 수사 요청도 묵살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겠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강홍지첨도 통합민주당 유선희(영암·장흥·강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19~64세 남녀 1만3천6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성인 여성 1천명 가운데 2.2명꼴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운데 강간 또는 강간 미수의 경우 신고율이 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력으로 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여성 1천명당 2.2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 건수는 여성 1천명 당 6.1건으로 1명이 평균 2.8건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간 또는 강간미수가 면식범

## 성인여성 1천명 중 2.2명

### 강간·강간미수 피해

인 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여성 1천명당 3.2명(8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가벼운 추행' 24.6명(52.5건), 이른바 '바비리먼'에 의한 '성기노출' 19.2명(36.5건), '성희롱' 11.2명(34.9건), '부부강간' 9.7명(22.7건), '심한 추행' 4.7명(15.1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성인 여성의 28.1%가 일상 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나이가 어리고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성폭력 범죄를 경험해 신고한 경우는 강간 또는 강간미수가 7.1%였고 '심한 추행'은 5.3%, '가벼운 추행'은 4.7%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최진실씨 자녀들 姓

### 엄마성 최씨로 바꿔



탤런트 최진실

<사진>씨의 자녀

들이 엄마인 최씨

의 성(姓)을 쓰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

우판사는 최씨가 자녀 2명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성분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혼 후 4년 가까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왔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양육 상황과 생활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마스크 캠기세요

황사주의보가 지속된 후 오후부터 약 해지겠다.

광주·전남·제주	5월 31일	(음 4월 27일)	▶전국날씨
맑음	11~24°C		
맑음	12~22°C		
맑음	14~23°C		
맑음	12~24°C		
맑음	9~25°C		
맑음	10~24°C		
맑음	9~24°C		
맑음	12~25°C		
맑음	9~25°C		
맑음	11~23°C		
맑음	12~23°C		
맑음	9~24°C		
맑음	8~25°C		
맑음	12~20°C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해뜨 05:20

▲해질 19:41

▲달뜨 02:14

▲달질 15:38

## 황사주의보

광주·전남 내일까지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대흑산도·홍도를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에 황사주의보를 발표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황사주의보는 31일 오전까지 강하게 지속된 후 오후부터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예상되는 미세먼지의 농도는 300~700㎍/m³(1m당 100만분의 1g)로, 황사는 휴일인 1일 오전까지 계곡될 것으로 보인다.

황사주의보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400㎍/m³ 이상일 때 발령되며 800㎍/m³를 넘으면 황사경보로 대체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고비 사막 인근에 저기압이 통과하며 상승 기류로 인해 발생한 모래먼지가 편서 풍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은 지난 2월과 3월 세 차례 황사가 온 적이 있다. /김필상기자 kps@

## 시내버스 노사 마라톤 협상 입장차 못좁혀

### 노조 파업 결의...광주시 초강수 대응 방침

다"고 경고했다.

시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위법 부당한 파업은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며 "파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내버스 노사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YMCA와 광주경찰서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협상인을 관찰시키려는 노조의 움직임은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내버스 노동조합은 "광주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임금은 6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11.8% 인상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며 "사업주들이 협상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온 만큼 31일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

며 이로 인한 '대중교통 스톱'이라는 사태에 이르도록 방지한 모든 책임은 사업주와 광주시가 져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시는 지난 2006년 12월 21일부터 운전원 인건비와 경영비 등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매년 1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내버스 노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노조측은 이날 밤 9시부터 30일 오전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강행, 조합원 1천 241명 중 1천 36명이 투표해 92.5%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시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평소의 65% 수준(590대)의 비상수송차량 확보, 지하철 증편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시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평소의 65% 수준(590대)의 비상수송차량 확보, 지하철 증편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부하직원 살해범 검거 감사"

○...부하직원을 살해한 강도를